
국 외 연 수 결 과 보 고 서

- 연 수 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바탐)
- 연수기간 : 2014. 12. 14. ~ 12. 18. [3박5일]
- 연수인원 : 19명(의원 14명 / 수행직원 5명)
- 연수목적 : 생산적,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자기계발



중 량 구 의 회

목 차

I . 국외연수 개요

1. 연수배경	1
2. 연수목적	1
3. 연수기간	2
4. 연수자 명단	2
5. 연수일정	3

II . 방문국 현황

1. 싱가포르 개요	5
2. 인도네시아 개요	12

III . 연수내용

1. 노인치매센터	18
2. 싱가포르의회	20
3. 마리나베라지	22
4. 국립도서관	24
5. URA갤러리	26
6. NEWATER	28

IV . 연수후기 및 소감	30
----------------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I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 국가전체를 관광자원화하여 우수한 선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의 행정, 문화관광사업, 도시계획, 수자원관리시스템, 친환경적인 공원사업, 노령화된 인구에 대한 대비 정책 등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하여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이 가진 경쟁력의 근원을 학습하고자 함.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를 감지하고 세계의 이질적인 문화 견문을 통해 자기계발과 창의적, 혁신적인 감각을 키우는 기회가 됨.
- 국외연수를 통하여 높아진 창의성과 안목 및 국제적인 감각은 의정 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발전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연수목적

-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자기계발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무원연수 목적에 맞도록 단순한 관광성 해외연수에서 벗어나 구정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연수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시키고자 함.

- 연 수 국 : 싱가포르(Singapore), 인도네시아(Indonesia) 바탐
- 연수기간 : 2014. 12. 14.(일) ~ 2014. 12. 18.(목) (3박5일)
- 연수자 명단

○ 총 19 : 구의원 14, 수행직원 5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구의장	서 인 서	의 원	이 현 배
부의장	조 희 중	의 원	장 신 자
의회운영위원장	은 승 희	의 원	조 성 연
행정재경위원장	김 영 숙	의 원	홍 성 욱
복지건설위원장	박 승 진	수행직원	오 정 락
의 원	김 명 찬	수행직원	이 두 열
의 원	김 윤 수	수행직원	엄 문 섭
의 원	김 진 영	수행직원	김 부 곤
의 원	왕 보 현	수행직원	김 승 준
의 원	이 영 실		

□ 연수일정

일자	도시	시간	일 정
1일차 (12/14) 일요일	인천	18:35	인천 국제공항 →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싱가포르	01:30	SINGAPORE MILLENNIUM HOTEL로 이동
2일차 (12/15) 월요일	싱가포르	09:30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공원” 견학 싱가포르 복합 문화공연장 “에스플러네이드” 견학
		11:00	노인치매센터(REHABILITATION CENTRE)방문
		13:30	“싱가포르 플라이어” <싱가폴 전경 견학> 탑승
		14:30	“싱가포르 의회” 방문 및 견학
		16:00	홍수방재시스템 “마리나베라지”
		19:30	“트라이쇼<인력거>, 인도식 시장
		21:00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팍 전망대” 견학
3일차 (12/16) 화요일	싱가포르	9:30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바탐)
	인도네시아 (바탐)	14:00	나고야타운, 원주민마을 견학

일자	도시	시간	일 정
4일차 (12/17) 수요일	인도네시아 (바탐)	09:30	인도네시아(바탐) → 싱가포르
	싱가포르	13:30	“국립 도서관” 방문 및 견학
		15:00	URA 갤러리
		16:00	NEWATER(수자원 관리시스템) 방문
		19:00	클락키, 워터보트
		22:30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5일차 (12/18) 목요일	인천	05:4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및 기관의 사정 등으로 사전계획보다 일부 조정됨.

II 방문국 현황

□ 싱가포르의 개요

구분	싱가포르(Singapore)	
국명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면적	697km ² 세계192위 (CIA 기준)	
국기		빨간색은 평등과 우의를, 하얀색은 순결과 미덕을 의미한다. 초승달은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는 싱가포르를, 5개의 별은 나라의 5가지 이상인 민주주의, 평화, 정의, 진보, 평등을 의미한다.
지도자	대통령-토니 탄 켝 암, 총리-리셴룽	
인구	약 5,567,301명 세계115위(2014.07 est. CIA 기준)	
수도	싱가포르(Singapore)	
언어	공용어 - 말레이어, 영어, 표준 중국어, 타밀어	
민족구성	중국인(76.8%), 말레이인(13.9%), 인도인(7.9%), 기타(1.4%)	
종교	불교(42.5%), 이슬람교(14.9%), 도교(8.5%), 힌두교(4%), 가톨릭교(4.8%), 기타 기독교 (9.8%), 기타(0.7%), 무교(14.8%)	
GDP	3,275억\$ (38위)	
1인당 GDP	61,046\$ (3위)	
통화	싱가포르 달러 (S\$)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공화국	

1. 일반현황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공화국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 나라이자 도시 국가이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분리되어 있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현 싱가포르 남부에 개발한 항구가 시초이다.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와의 다툼 끝에 결국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독립 당시 인구는 160만명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520만명에 이르렀다. 20세기 후반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이며, 정유시설과 금융산업은 세계에서 각각 3, 4번째로 크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싱가포르 넓이의 500배에 달하는 옛 중주국 말레이시아를 총 경제규모로도 추월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5만달러, PPP 환산 국민소득은 6만달러에 달하며, 1인당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정상권이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697km²로 한국의 서울보다 조금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 약 557만

명이다.

2. 역사

싱가포르에 관하여 역사적인 기술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3세기의 중국 문헌으로, "Pu-luo-chung" 이라고 나온다. 7세기 이후 스리비자야 왕국에 속하며 자바어로 "바다 마을"이라는 뜻의 어촌 "테마섹"(Temasek, Tumasek)이라 불리었다. 복수의 항로가 합류하는 말레이반도의 끝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 더해져 다양한 나라의 선박이 기항하는 등, 테마섹은 중요한 무역도시로 떠올랐으나, 이후 14세기 경에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다. 1617년말레이시아-포르투갈 전쟁 중에 포르투갈 군대가 싱가포르를 불태웠다. 이후 16세기 동안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며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어민과 가끔씩 해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1819년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7년부터는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869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구는 100,000명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하여 (싱가포르 전투) 점령하였다. 6일간 영국군은 치열한 방어를 하였으나, 1942년 2월 15일 항복을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쇼난(昭南)으로 개명하고 1945년 9월 12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다.

1959년에 리완유(Lee Kuan Yew) 수상과 유소프 빈 이샤(Yusof bin Ishak)에 의해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2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인 싱가포르와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인인 말레이시아와의 마찰로 2년 후 독립하게 되고,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였다. 유소프 빈 이샤이 초대 대통령으로 리완유가 초대 수장으로 계속 집권하였다.

새로운 국가로서 싱가포르는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리완유 수상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리완유 전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3. 지리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은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를 통해, 서쪽은 투아스 제2 연결점에 연결되어 있다. 주룽 섬, 플라 테콩, 플라 우빈, 센토사가 주요 섬이며, 가장 높은 산은 부킷 티마 힐로 해발 166미터이다. 본섬의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 강의 남쪽이 원래 도시의 발원이었으며 현재는 다운타운 코어로 불린다. 이전에 그외 지역은 농장과 열대우림이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함께 거주와 쇼핑 그리고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1960년대에는 581.5km²의 면적에서 현재는 697.2km²로 확장되었다. 이는 서울(605.25km²)보다 약간 큰 면적이다. 2030년까지 100km²를 더 확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작은 섬이 본섬과 연결되었는데, 주룽 섬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4. 기후

기후는 연중 고르게 아침 최저 23℃에서 낮 최고 32℃의 열대 우림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2343.1 mm 정도이며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5. 경제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이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1770억\$로 43위의 해당하는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대한민국, 중화민국과 함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곤 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유명하다.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은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다.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GST는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되었다. 싱가포르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약 20%다.

6. 문화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 민족 인구나 3대에 걸친 중국인, 이민은 인도인과 아랍인 그리고 현대에 이민오거나 현지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 내는 복합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 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Peranakan, 해협 중국인 사회)의 문화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들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영어는 식민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국식 영어이다. 여기에 다양한 중국어 방언, 말레이어, 인도어가 뒤섞여서 싱글리쉬라는 일종의 영어 방언을 만들고 쓰게 되었다. 교육제도에서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문학은 주로 영어로 쓰인다.

식민지시대에 이민자를 분리수용하는 정책 때문에 리틀인디아나 차이나타운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건축적 영향력이 잘 보존되어 건축물을 통해 각 민족의 성격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인 구역에서는 여러 층으로 된 탑들, 용 형상 구조물과 조각품들, 건물 외벽에 붉은색과 황금색을 많이 사용하는 등 중국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만날 수 있다. 중국인 이주자들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불교 사원을 건설하기도 했는데, 쌍림(Siong Lim, 雙林)사원이 그것이다. 이주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시내에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관용을 지닌 국가의 본보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기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나, 수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7. 대한 관계

대한민국은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했다. 이 대표부는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가 1975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양국은 1972년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1979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을 한국 건설업체가 건설하였다.

양국은 서로 10위권 내의 교역 상대국이며,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가 수출입 품목이며,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152억4420만USD, 싱가포르의 대(對)대한민국 수출은 78억4953만USD(각 2010년)에 달하여,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5위의 수출국, 제14위의 수입국이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1999년 잠실 시그마타워, 2000년에는 프라임타워, 서울과

이낸스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의 대형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45층짜리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탈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인 선수들이 싱가포르 축구 리그에 진출해 있다.

□ 인도네시아의 개요

구분	인도네시아(Indonesia)	
국명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면적	1,904,569km ² 세계15위 (CIA 기준)	
국기		빨강과 하양은 전통적인 국민색인데, 결백(하양) 위에 선 용기(빨강)를 상징한다. 그밖에 지구 위의 생명, 낮과 밤, 남편과 아내, 창조와 개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도자	대통령 - 조코위, 부통령 - 유수프 칼라	
인구	약 253,609,643명 세계4위 (2014.07 est. CIA 기준)	
수도	자카르타	
언어	인도네시아어	
민족구성	자바인(40.6%), 순다인(15%), 마두라인(3.3%), 미낭카바우족(2.7%) 등	
종교	이슬람교(86.1%), 개신교(5.7%), 로마가톨릭교(3%), 힌두교(1.8%), 기타(3.4%)	
GDP	\$1조 2,373억 (15위)	
1인당 GDP	\$4,977 (125위)	
통화	루피아(Rupiah)	
정부형태	대통령제 공화정	

1. 일반현황



정식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말레이제도(諸島)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각 방면에서 문화적·민족적인 교류와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명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언어학자인 J.R.로건이 명명한 것으로 '인도 도서(Indo Nesos)'라는 뜻이다. 현지인들은 중세 때 자바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누산타라(Nusantara)'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역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나 1975년 해외식민지를 모두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자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99년 8월 분리 독립했다. 행정구역은 30개주(propinsi), 2개 준주(daerah istimewa), 1개 수도구(daerah khusus ibukota)로 되어 있다.

2. 역사

고대 왕조(국가가 성립된 것은 358년, 한국은 삼국 시대였을 때였다.)로 마자파힛과 스리비자야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1602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때까지 지배 (국기는 네덜란드의 국기를, 국

가는 네덜란드의 국가를, 공용어는 네덜란드어, 자와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 받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다시 네덜란드의 점령 시도가 있었으나, 국제 연합의 중재로 1949년 12월 27일 네덜란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을 독립한 해로 여기고 독립 기념일을 8월 17일 (국정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1949년을 독립한 해로 여긴다. 그리고 수카르노가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1962년에는 자국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다. 1975년에는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동티모르를 강제로 점령, 합병하였다.

1965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수하르토 장군이 1998년 혁명에 의해 하야한 이후 (바하루딘 유습 하비비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에는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유 선거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당시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 대결하여 현 대통령인 유도요노의 승리로 끝났다. 2007년에는 자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타이-싱가포르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되었다. 2012년에는 미국에서 제작된 반이슬람영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으며, 반이슬람영화로 촉발된 시위를 놓고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였다.

3. 지리

인도네시아는 17,5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0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섬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 파푸아 섬, 술라웨시 섬이다.

4. 기후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 에서 남위 10° 사이에 위치하므로 완전한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동남아시아 계절풍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 거의 전지역이 평균기온 25~27℃를 기록하며 적도변의 중앙지대에서는 월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강수량은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심부에 해당되는 적도 부근의 연중 강우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건기(乾期)와 우기(雨期)의 구별이 뚜렷하다. 주요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폰티아나크(보르네오 섬) 3,175mm, 파당(수마트

라 섬) 4,172mm, 자카르타(자바 섬) 1,755mm이며, 소순다열도의 동쪽은 훨씬 더 건조하다. 더운 날씨 때문에 12월, 1월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자카르타 (남위 6도)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서, 높은 기온과 많은 강우량이 특징적이며, 이에 따라 습도도 연평균 75~85%로 상당히 높다. 연평균 기온은 26.9℃로 연교차가 1℃에 불과하지만 1월과 2월에는 20℃이하가 되는 날도 있다.

5. 경제

네덜란드 국민경제의 확대와 재편을 위해 식민지화된 인도네시아는 서유럽 기업에 의한 단일재배경제형(單一栽培經濟型: monoculture)의 식민지가 되어왔으며, 민족사회 내부에 민족 부르주아를 형성하지 못한 관계로 독립 후에도 기간산업부문(基幹産業部門)은 물론 생산수단의 생산부문이나 소비물자의 생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1942년 네덜란드 식민지권력의 붕괴, 일본군정(1942~1945), 독립전쟁(1945~1949), 그리고 수카르노 정부에 의한 네덜란드 기업의 접수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적 대지주제와 전통적 토지 소유제도의 2중구조를 타파하려는 국민경제의 형성이 촉진되었으나, 수카르노 정부 시책을 받쳐주는 경제적 기초가 약했을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뒤를 이은 수하르토 정부는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비마스 계획을 실시하고 식량·의료 등 국민생활의 구체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시책을 실시하였다. 이자를 포함해 24억 달러가 넘는 수카르노정부의 대외채무상환의 연기가 일본·미국 등 자유주의 제국에 의하여 실현된 후 1967~1969년 수하르토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원조를 받았으며 이 사이에 또 10억 달러의 외자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환율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농업과 광업에 기초를 둔 개발도상국형의 혼합경제체제인데, 1998년 현재 6020억 달러의 국민총생산 중 농업이 18.8%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도 총취업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농업국이며, 동남아시아 유일의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이었으나 2009년 1월 OPEC를 탈퇴하였다. 1989년 시작된 제5차 5개년계획에서는 농업부문의 식량자급량 확보와 수출진흥·고용기회확대를

위한 공업부문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7년 6월부터 시작된 루피아화의 가치폭락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1997년 6월 1달러당 2,450 루피아가 1달러당 1만 7000루피아로 떨어지기도 했다. 루피아와의 가치폭락은 국내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급등, 기업도산, 실업자 양상, 경상수지적자 등을 초래하여 1998년 현재 GDP가 전년대비 13.6% 감소하였고, 1인당 GDP는 1996년도 1,184달러에서 1998년도 480달러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는 728달러로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와 원조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6. 문화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오랜 세월을 걸쳐 문화적인 동화작용을 거쳤으며, 그 결과 풍부한 문화양식을 형성하였다. 대승불교의 유적, 힌두교 사원, 금속세공, 장식예술 등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으로 보호, 계승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노인 및 어린이들은 통상 낮(오후 2~4시)에 휴식을 취하며, 땀을 흘리는 일이 많으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한다.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의 마지막 무렵에는 성대한 축제를 거행한다.

7. 대한관계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남북한의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과는 1973년 9월에, 북한과는 1964년 4월에 국교관계가 성립되었다. 1981년 7월 전두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 대통령 수하르토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자원개발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확대되었다.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고, 2000년 2월과 10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와히드가 방한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발전되고 있다.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은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1971), 임업협정(1987), 항공협정(1989), 이중과세방지 협정(1989), 투자보장협정(1991), 법무자료교환 협정(1996),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협정(1997), 건설협력약정(1999),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2000) 등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마두라 유전개발 등을 비롯하여 민간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최근 10년 큰 성과를 얻었다. 양국은 2006년 6월 9일 두 외무부 장관 주재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기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을 함으로서 더욱 발전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인종은 노동력, 시장잠재력과 쌍을 이루며 한국의 첨단기술, 자본, 숙련된 경영으로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Ⅲ 연수내용

1. 노인치매센터(Apex Day Rehabilitation Centre)

방문일 : 2014. 12. 15(월)

내 용



싱가포르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가 빠른 나라이다. 싱가포르의 노인 정책의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도 현재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 노인 치매 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이날 공식일정으로 방문한 이곳은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노인 치매센터로, 로타리, 라이언스 클럽 등의 봉사단체의 젊은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설립하였다고 한다. 설립취지는 노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자 처음에는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여 점점 치료센터, 장애인센터, 물리치료센터 등 재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차츰 늘어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

현재 이 센터에는 간호사, 상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17명의 직원과 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등록된 인원이 120명으로 주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노인치매센터 등록 규정을 보면 만65세 이상이 원칙이나 파킨슨병이나 의사가 추천한 환자들 중 연소득이 1,200불 이하 저소득자도 이용 가능하며, 주로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가 대다수이고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가 있다고 한다. 주로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루에 2시간씩 예약제로 이용하고 있다.

노인치매센터의 운영은 Apex이라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대상자에 따라 30~80%를 지원받고, 부족한 예산은 Apex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원장님으로 계신 수녀님으로부터 노인치매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주로 관주도로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점이 많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민간봉사단체나 인력들을 많이 발굴해 그들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2. 싱가포르의회(Parlliament of Singapore)

□ 방문일 : 2014. 12. 15(월)

□ 내 용



싱가포르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보통,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84명의 의원과 9명의 지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구는 1명을 선출하는 단일 선거구와 3~6명을 선출하는 GRC(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로 구분되는데, 12대 국회부터 단일 선거구에서 12명, GRC에서 75명이 선출되어 총 87명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야당 입후보자로 9명 이상의 무선거구 의원(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을 둔다.

의원의 임기는 원 구성일로부터 5년인데 의회 해산 시 임기가 종료되며, 총선은 의회 해산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의원 피선거 자격은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21세 이상의 사람으로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의회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은 1965년 독립 이래 정권을 야당에 넘겨준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 실시된 2011년 5월 7일 총선에서도 전체 87

명의 의석 중 81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다.

싱가포르의 의회정치는 사실상 인민행동당의 독무대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식의 독재로 흐르지 않고, 관료조직이 청렴과 능력주의를 겸비하면서 싱가포르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윗선에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며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3. 마리나베라지(Marina Barrage)

□ 방문일 : 2014. 12. 15(월)

□ 내 용



싱가포르는 하루에 거의 한 번 씩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 붓지만 물은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산 좋고 물 좋은'이란 말처럼, 높고 깊은 산이 있어야 물도 좋은 법이나 싱가포르의 제일 높은 산 부킷티마는 겨우 해발 163.3 미터이고 전 국토는 대부분 정글과 습지(swamp)를 매립한 것이다. 그나마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고, 코즈웨이를 따라 대형 파이프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걸핏하면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래도 수질은 말레이시아보다 좋아서 수돗물을 그대로 믿고 먹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리나 베라지'이다.

이관유의 오랜 구상으로 2008년 11월에 완공한 15번째 저수지이자 도심에 위치한 수자원시설로 물 공급과 홍수조절, 휴식공간의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 리버와 바닷물 사이에 높이 28미터의 9개 수문이 자리 잡고,

그 위는 마리나 이스트와 마리나 사우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수문을
개폐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만조 시에 물을 방류하지 못할 경우 7개의 대
형 펌프시설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옥외에 발전시설인
Solar Park가 있고, 옥상은 잔디를 깔아 Green Roof 에너지 효율, 조
경,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환경관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학 및
각종 세미나도 열린다.



4. 국립도서관

□ 방문일 : 2014. 12. 17(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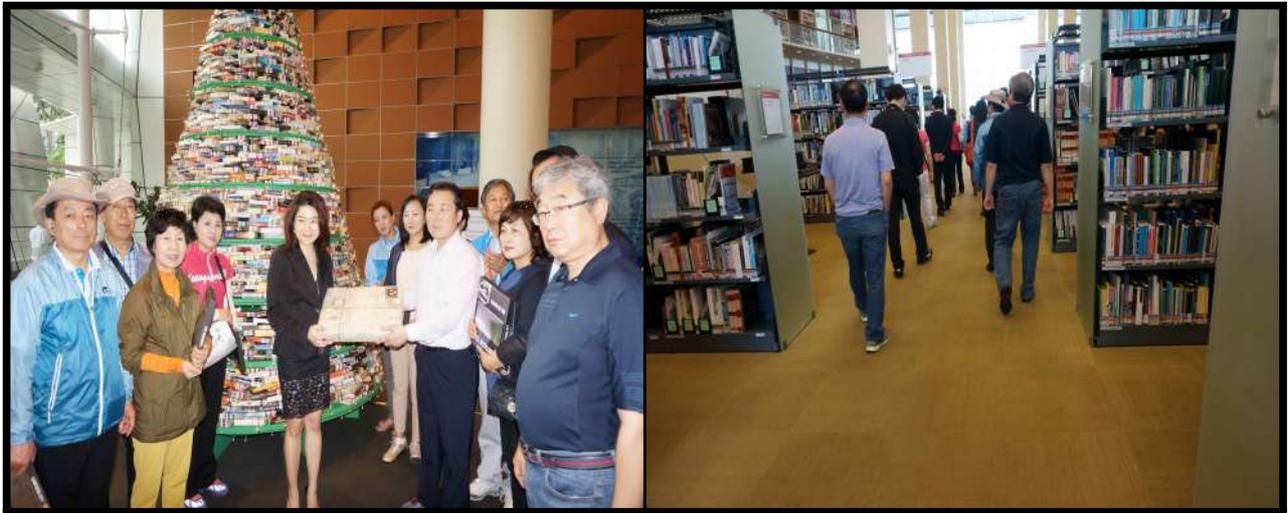


2005. 7. 22. 개관한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켄 양 쿠알라룸푸르 인근 IBM 자회사 건물을 만들었던 건축가의 작품이다. 16층의 건물은 5층과 10층의 이두를 비워 공원을 조성했고 15층은 아예 전체가 공원이다. 또한 차양도 빛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부기스 인근에 있다.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상업 지구에 국립도서관이 위치한다. 명동 한 복판에 또는 강남 한 가운데에 국립도서관이 위치한 셈이다. 여의도에 외따로 섬처럼 떨어진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이나 반포동의 국립도서관보다 접근성이 무척이나 좋다. 도서관은 그 나라의 건축물의 수준을 가능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짧은 역사 근대의 싱가포르의 건물들은 신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공연장 역할을 모두 한다. 지하 1층 일반 열람실은 어른 아이, 노인, 외국인 누구나 환영한다는 듯 열린 문이다. 도서관에는 사서들과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안내원이 옆에 있다.

도서관의 각 책들은 분류코드의 순서에 의해 좌우로 정렬되어 있고 이런 저런 이벤트로 책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영어로 된 책이 대부분이다. 그룹 스터디를 하기에 편한 넓은 탁자가 군데군데 놓여있고 멀티미디어 자료도 잘 구비되어 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가다보면 작은 규모의 무료 전시가 있다. 이런 전시를 보며 5층으로 올라가면 작고 아담한 정원이 꾸며져 있는 스터디 라운지가 있다. 스터디 라운지는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소통의 장소이다. 국립도서관에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현재를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 싱가포르의 오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5. URA갤러리

□ 방문일 : 2014. 12. 17(수)

□ 내 용



1974년에 설립된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국가 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 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 조직이다. 「싱가포르를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에 훌륭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 조직은 싱가포르의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컨셉 플랜과 마스터플랜 그리고 상세한 개발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다운타운 마리나베이 프로젝트에서처럼 개발공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갤러리는 2, 3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는 싱가포르의 모습을 축소하여 전시해두었다. 싱가포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정글이었던 시대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발전된 모습을 각 지역마다 모형과 그림으로 분류해 놓아서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50여개의 실물 전시물과 터치스크린 터미널을 갖춘 갤러리는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역사를 전시한 갤러리」 갤러리의 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는 URA의 모든 활동이 일반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다. 싱가포르

르 전체와 주요 도심지를 안내하는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과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 보고서, 직접 발행한 책자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전체 모형과 중심 업무지역의 모형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6. Newater(수자원 관리시스템)

□ 방문일 : 2014. 12. 17(수)

□ 내 용



대표적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자체 상수원이 없어 빗물과 해수, 그리고 하수를 정수해서 사용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수를 다시 정수해서 상수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수돗물은 4가지가 주요 원료이다. 그 중 하수를 정화해 상수원으로 보내는 시설이 뉴워터이다.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와서 해결한다. 자체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돈을 지불하고 상수원을 끌어오는 것이다. 두 번째 상수원은 빗물이다. 빗물을 받아 집수지에서 정수장으로 보낸다. 세 번째는 해수를 담수로 바꿔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 번째인 하수를 상수원으로 바꾸는 뉴워터 시스템이다. 하수는 상수원 중 가장 수질이 떨어지는 재료이다. 그러나 뉴워터를 통해 재생산된 물은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 될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싱가포르 뉴워터는 하루 22만8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이중 5만 톤은 다시 상수원으로 쓰인다. 중수도(하수를 다시 정화해 상수로 사용)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싱가포르 전역에 뉴워터와 같은 중수도 시스템을 갖

춘 곳은 모두 4곳이다.

우리가 견학을 간 ‘베독정수장’에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다녀간다. 수돗물 정수 방법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다. 그만큼 정수장에는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있다. 베독정수장 건물 밖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조성돼 있고, 건물 주변은 뉴워터에서 생산된 대형 연못이 있다. 연못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건물 안 대형 극장에서는 뉴워터 시스템을 압축해 설명하는 단편 영상이 상영된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각 공정별로 정수장 내부를 볼 수 있다.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설치돼 관람객은 1시간 동안 뉴워터 시스템에 몰입하게 된다. 이 같은 홍보 전략으로 싱가포르 뉴워터는 초등학교들의 대표적 소풍과 견학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현대 정수 기술로도 상수원 수질과 상관없이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싱가포르 뉴워터 시스템이다.



IV 연수후기 및 소감

- 이번 국외 공무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로 많은 질타를 받아온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연수부터는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연수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고 배울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검증받은 공공기관 위주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애를 많이 썼다.
-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연수를 떠나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방문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왜 싱가포르가 짧은 역사와 부족한 지하자원, 강한 나라 사이에 낀 지리적 약점, 다민족 국가라 사회 통합이 쉽지 않았던 문화 환경속에서 왜 정부주도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는지, 건물 하나 하나에도 디자인을 도입하고 스토리화하여 어떻게 관광자원화하였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노인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노인치매센터를 방문했었다. 중랑구에도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등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좋은 기관이 있지만 수용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한정된 복지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복지관만을 늘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의 예에서와 같이 민간봉사단체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주도의 정책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싱가포르는 사시사철 소나기 같은 폭우가 자주 내린다. 마리나베라지

는 2008년 11월에 완공한 15번째 저수지이자 도심에 위치한 수자원시설로 물 공급과 홍수조절, 휴식놀이공간의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랑구도 한때는 중랑천이 범람하여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었으나 이제는 빗물펌프장 등 수해예방 시설을 잘 구축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침수피해를 극복했던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 전시관을 만드는 등 관광상품화하고 수해예방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느낀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접근성이 좋으며 자유분방하다는 것이다. 일반열람실에도 책상뿐만 아니라 곳곳에 쇼파가 있어 편한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도 있다. 책을 보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여김으로써 누구나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지하1층 열람실에 들어서면 따로 한칸이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는 어른들도 애들 떠들까봐 걱정할 필요없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건물 곳곳에 정원시설 및 공원이화 되어 있어 책읽는 중간중간에 머리를 식힐 수도 있다. 중랑구의 도서관도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 연령에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도 어릴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함께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수자원 관리센터인 Newater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싱가포르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됐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거의나지 않는 곳에서, 하수를 정화해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을지 가늠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도 20~30년 후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여름에만 강수량이 집중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이 문제이다. 수질오염 예방과 잦은 가뭄 극복 및 미래의 물 부족을 대비하

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뉴워터 플랜’의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박5일 동안의 공무연수를 통해서 가장 큰 성과는 참가한 의원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동료의식을 얻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당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후기를 마친다.

